

# 세계 PC산업의 재편과 국내 PC산업의 활로

국내 PC산업은 경영악화와 수출부진의 위기에 직면

최근 발생한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 신청은 삼보컴퓨터가 한국 PC산업에서 유일한 대기업형 전문기업이자 벤처업체의 신화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PC산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IBM의 PC사업부 매각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산업재편현상이 국내에서도 전개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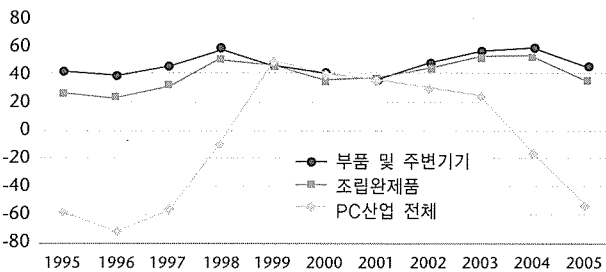
과거에도 다수의 조립메이커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그동안에는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간주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사태는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세진, 나래엔컴퍼니, 로직스, 컴마을, 현대멀티캡 등이 PC사업에서 철수하였으며, 붐보의 법정관리 신청 한 달 전에는 중견기업인 현주컴퓨터도 부도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브랜드 조립메이커는 국내 PC산업의 한계 상황을 반영하여 삼성전자, LG전자라는 양대 기업 외에 주연테크컴퓨터, 대우 컴퓨터만이 남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수출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금년 1~4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비 26%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특화지수도 크게 하락했다.

수출부진은 한국의 해외생산 확대, 중국의 생산능력 강화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열세 심화, 브랜드 열세 등에 기인했다.

한국 PC산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공급과잉에 따른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PC산업의 경영환경 악화

그동안 한국 PC산업은 기술개발 노력으로 고속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경쟁력보다는 수요급증과 정책지원에

편승한 양면적 요소도 많았다.

2000년대 초기까지의 성장은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폭발적인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수요급증과 정책적 지원에 편승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세계 수출시장도 급성장하여 OEM 및 부품 수출을 통해 특별한 비교우위 역량 없이도 매출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였다.

국내 조립업체는 기술혁신이나 고급 브랜드 확보보다는 물량확보에 집착한 수익성 없는 OEM/ODM 사업에 치중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국내 대형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메이커에 대한 OEM/ODM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독자적인 브랜드 수출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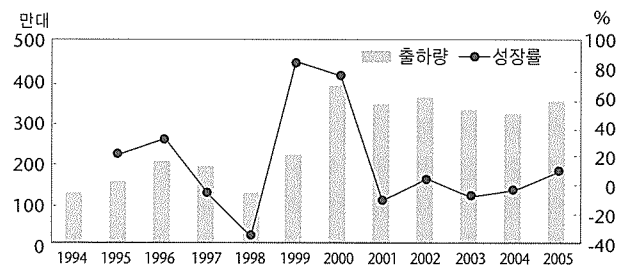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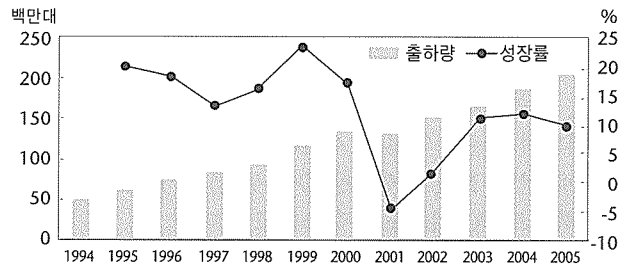
ODM(제조업자 개발생산)은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인 OEM과 구별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PC산업의 위기가 초래된 기본배경을 보면 첫째, PC보급률 증가와 신규수요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수요증가가 둔화되면서 국내외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구조적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세계시장의 대체수요 비중이 약 70%를 상회할 정도로 수요구조가 신규수요에서 대체수요로 전환된 데다 교체주기가 장기화되는 추세여서 잠재성장력은 크게 퇴조했다.

국내 및 세계시장 성장률은 모두 2000년대 초부터 크게 둔

PC시장의 출하량 및 성장률 변화



자료: 가트너, IDC 발표자료 종합

화된 상태이며 특히 국내시장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소비자들의 PC개념이 변하고 기술혁신이 성숙기를 맞이하면서 기술혁신(CPU, 운영체제)과 수요확대라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수요를 자극하는 돌파구가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 PC 성능이 일반인의 사용수준을 훨씬 넘어서면서 성능 및 지상주의만으로는 다기능성, 복합성과 이동성을 증시하는 새로운 소비자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장이 성숙기로 진입한 이후 기업들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전개하면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저수의 경영'이 구조화되고 있다.

### PC산업의 특성이 기술집약산업에서 조립산업으로 변모

PC산업의 개념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술진보의 한계 및 가격경쟁의 심화로 산업 특성이 중국 부상 이후 기술집약 산업에서 '조립산업'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의 상징 IBM이 저가의 상징인 중국기업에 PC사업을 매각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데스크톱의 경우 제품당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단순조립 위주이다.

PC산업이 노동집약적 조립산업화된 것은 기술혁신의 한계로 인해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면서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CPU, 운영체제(OS), 메모리 등 이른바 기술적 독과점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수요부진으로 인텔, MS, 마이크론(D램 생산) 등 PC 관련 독과점 기업들까지도 PC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세계 PC산업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삼성전자가까지 중국으로 노트북 PC 생산을 완전 이전할 정도로 중국의 '블랙홀' 현상은 압도적이다.

세계 노트북의 약 70%를 생산하는 대만은 중국내 생산을 2001년의 5%에서 불과 3년 만인 2004년에 약 80%로 확대하였으며, 중국은 저임금과 부품 대량구매를 무기로 현재 세계 PC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경쟁에 대응하여 생산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국내업체들의 경우도 삼성전자가 국내 자체생산을 중단했으며, LG

전자도 국내생산 축소와 중국생산 확대를 계획 중이어서 조립 기반의 중국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 국내 PC산업의 저부가가치화로 경영지표들도 악화 지속

출하액, 부가가치, 유형자산, 사업체수 등 국내 PC산업의 모든 경영지표들도 2001년 이후 급속하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도 위축됨으로써 국내 PC산업의 쇠퇴를 여실히 반영했다.

국내 PC산업의 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징후는 아래와 같다.

유형자산 대비 부가가치는 1999년 1.71에서 2003년 2.07로 상승하였으나 2004년(이하 추정)에는 2000년 수준인 1.96으로 낮아짐으로써 중간투입요소에 비해 생산성이 더욱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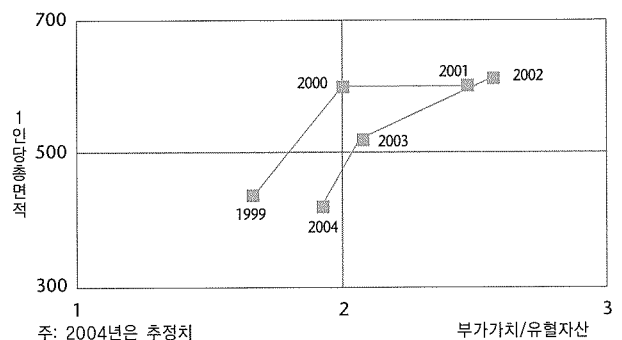
산업성과인 1인당 출하액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2004년에는 2002년의 7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1인당 부가가치도 2002년의 67%에 불과하여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PC산업의 제조업내 생산비중도 2002년 4.7%에서 2004년에는 3.7%,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중 8.2%에서 6.9%로 각각 하락하여 제조업에서의 위상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10년간 유형자산-부가가치-출하액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각각 0.89 이상)를 보임으로써 국내 PC산업에서는 유형자산의 축소가 생산 위축과 부가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가 국내 PC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PC산업의 성과 변화



국내 PC산업의 주요 지표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제조업 생산비중	0.9	4.3	4.5	4.7	4.3	3.7
해외직접투자 (만 달러)	8,524	6,369	3,249	11,365	5,037	9,880
생산능력지수(2000=100)	42.6	100.0	110.0	113.9	107.5	95.9
수출비중	4.0	8.8	7.7	8.2	7.9	6.9
고용증감률	-3.1	-4.2	2.2	2.1	-8.3	-1.4

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STANS)에서 추출

### 글로벌 PC산업은 거대기업의 등장으로 재편될 전망

중국 레노보의 IBM PC사업 인수로 레노보는 델, HP에 이어 세계3위 업체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업계에서는 세계 PC 시장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06~2008년 기간 중 세계 출하대수 연평균 5.7%, 매출 증가율 2%로 예측하면서 특히 2006년을 PC산업 최악의 해로 전망했다.

시장 재편에 대한 무게감 있는 예고성 관측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이다.

가트너가 2007년까지 세계 10대 PC메이커 중 3사의 철수를 예측한데 이어, 미국 월가에서도 레노보 빅딜로 큰 기업은 더 커지고 작은 기업은 더 작아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10대 상위 메이커 중 몇 년간 견조하게 이익을 달성하는 기업은 오직 델뿐이며, 2위인 HP마저 PC사업 마진이 2004년 0.9%에 불과하여 PC사업 분사 여부가 주목된다.

### 국내업계는 고부가가치화와 비용혁신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장재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중국과의 가격경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제품차별화와 획기적인 비용절감 대책이 없으면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경영지표들의 하향추세가 의미하듯이 조립산업화된 PC산업에서 중국 부상 이후 한국은 과거와 같은 재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PC산업은 중국의 부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과열경쟁·저수익 구조로 전환되면서, 성장 모멘텀의

부재로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PC산업의 재편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바일 환경 등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과 제품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든 PC산업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멀티미디어화에 맞춰 프린터(HP)에서 카메라, 오디오(소니)에 이르기까지 PC를 보완하는 고수익 주변제품 및 서비스 판매와 IT기술 축적을 위한 전략적 포석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보다 물량확보에 집착한 삼보의 교훈이 시사하듯이 전략적 선택으로 수익을 주는 독자적 '수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성장단계가 아닌 성숙단계에 대응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차별화로 이른바 경쟁시장(레드 오션)에서 비경쟁시장(블루 오션)으로 신속히 옮겨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임.

특히, PC산업의 마지막 보루인 대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강화, 신개념의 제품개발력 강화, 디지털 제품과의 컨버전스 등 종합가전사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난관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컨버전스와 정보기기의 소형·경량화 추세에 맞춰 PC산업의 미래는 차세대 PC의 기술 흐름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므로 차세대 PC 기술의 선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PC는 모듈산업이어서 핵심부품을 보유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므로 기존의 주력분야 외에도 고용량 HDD, 차세대 DVD 등 새롭게 부활하는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에 주목하여 개발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기술이 수반되더라도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야 활로를 열어가갈 수 있을 것이므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비용혁신(cost innovation)에 주력한다.

국내 PC산업이 메모리, 모니터, 광저장장치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고급제품군에서 상호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